

조선간호대-광주이주여성연합회, 돌봄 인력양성 '맞손'

간호·보건 전문교육 역량으로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지원 건강증진 활동·돌봄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조선간호대학교는 최근 광주이주여성연합회와 다문화가정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보건교육 연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ANCHOR사업) 단위과제인 '광주 통합돌봄 허브대학 운영'의 하나로 추진됐다. 증가하는 돌봄 수요와 다문화가정의 건강·복지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호·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건강증진 및 돌봄 역량 강화, 교육·봉사활동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조선간호대는 간호·보건 분야 전문 교육 역량을 활용해 다문화 대상 건강관리 및 돌봄 교육을 지원하고, 광주이주여성연합회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활동과 돌봄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 교육

과정에는 기본 간호, 응급처치, 노인 돌봄, 의사소통, 돌봄 윤리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돌봄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김분옥 광주이주여성연합회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이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조선간호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문화를 포용하는 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다문화 대상 건강·돌봄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간호·돌봄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us@gwangnam.co.kr



조선간호대학교는 최근 광주이주여성연합회와 다문화가정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보건교육 연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조선간호대

구례군, 동네의원과 '마음이음' 사업 추진...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의료기관 원장 대상 간담회 우울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

구례군은 최근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협약 의료기관 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은 동네의원을 방문한 주민 중 우울, 불안, 음주 문제,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현재 군은 8개 협약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역할을 담당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 사례관리,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군은 최근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협약 의료기관 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구례군청

간담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현황과 연계 실적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앞으로도 협약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발굴과 치료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주민의 정신건강을 세심하게 살펴주

시는 협약 의료기관 원장의 노고 덕분에 구례군이 매해 전남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정망을 더욱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ikjin@

광주보훈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0건 등록

첫 상담 후 1년 만에 성과

광주보훈병원 공공의료센터는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 1000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임했을 때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광주보훈병원은 지난해 5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첫 상담을 시작한 이래 약 1년 만에 등록 1000건을 기록하게 됐다. 1000번째 등록자는 평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의사를 가지고 있던 지역민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의향서 등록을 마쳤다.



김주희 공공의료센터 사회복지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일반 사회 복지기관 등에서도 운영 중이다. 광주보훈병원은 실제 치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인 만큼 내원 환자와 보호자의 제도 체감도가 높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주보훈병원 공공의료센터 상담 장소를 방문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이산화 기자

동신대 인권센터, '제1회 동신 인권영화제' 재학생 서도우 감독, 단편영화 '태몽' 연출...인권 가치 공감대

동신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차수봉)가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대정2관에서 '제1회 동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

동신 인권영화제는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의 가치를 영화라는 친숙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영화를 매개로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상영된 단편영화 '태몽'은 차별과 편견, 장애인 인권, 가족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인권의 본질적 가치와 서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이 작품은 동신대 간호학과 4학년 서도우 학생이 직접 연출에 참여해 대학생의 시선에서 인권 문제를 섬세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영화를 관람한 경찰행정학과 4학년 박세준씨는 "영화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인권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며 "특히 우리 대학 학우가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라 더 몰입할 수 있었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

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수봉 동신대 인권센터장은 "인권은 특정한 사람이나 소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보편적 가치"라며 "앞으로도 인권영



동신대학교 인권센터는 최근 대정2관에서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동신대학교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

화제를 비롯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권 존중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밝은안과21병원, 제18회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

밝은안과21병원(대표원장 김주영·사진)은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18회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공모전은 아이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접수는 다음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다. 출품작은 어린이가 직접 손으로 그린



작품이여야 하며, 규격은 유치원생 8월 도화지, 초등학생 4월 도화지다. 미술 도구나 표현 기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색연필, 물감, 크레파스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밝은안과21병원 기획홍보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상은 유치부와 초등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부문별로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유치부 1명·초등부 3명), 장려상(유치부 3명·초등부 5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 및 상품이 수여된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게시판

- 결론** ▲김광호(여수시청 도로교통국장)·박현주(전남도청 주무관) 씨 딸 수연(비기닝뮤직엔터테인먼트 원장) 양, 김태연·박금남씨 아들 도영군=21일(일) 낮 12시 메리포엠 B1 메이에르홀(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람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교육용·경제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차매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은세 (음력 4월 27일)

- 48년생 육심은 육심을 낳는 법이다
- 60년생 적극적 선택이 아니면 곤혹스럽겠다
- 72년생 평소 바라던 일이 이뤄질 것이다
- 84년생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96년생 상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 51년생 거세를 크게 벌이지 마라
- 63년생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는가
- 75년생 신규 사업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라
- 87년생 미련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 99년생 체계적으로 나가야만 하는 판국이다
- 54년생 상하간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 66년생 항상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 78년생 확인 전에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옳다
- 90년생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다
- 57년생 도처에 문서가 있다
- 69년생 웃어른의 칭찬이 자자하다
- 81년생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오니 어둡다
- 93년생 옛 사람을 공경하면 큰 복이 따른다

- 49년생 문제점이 보일 것이다
- 61년생 원한이 있다면 화해하도록 하라
- 73년생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 85년생 어려움이 예상되니 때를 기다려 보라
- 97년생 감정 기복이 심하니 자신을 다스려라
- 52년생 작용에 따른 파장이 위상에 영향 준다
- 64년생 이제는 더 이상 전진이 없다
- 76년생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더욱 길하다
- 88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 된다
- 55년생 뇌물성 금전은 훗날 해가되니 거절하라
- 67년생 뜻이 높고 외대하니 큰 뜻을 펼치겠다
- 79년생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다
- 91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적극 참여하라
- 58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고 하늘에 오른다
- 70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 82년생 친구 떠나가니 실연하지 말자
- 94년생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를 필요로 시기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 50년생 옛것 버리고 새것 좇으니 결과가 좋다
- 62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덩 할 것이다
- 74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얻을 수 있다
- 86년생 발언해야 한다
- 98년생 어느 곳으로 여행기도 좋다
- 53년생 부동산 투자 유혹 등을 조심하라
- 65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 77년생 문제 될 것이 없으니 추진하라
- 89년생 백년해로할 배필을 만나다
- 56년생 앞 뒤 계산을 먼저 할 것
- 68년생 적극 임하면 행운을 잡게 될 것이다
- 80년생 일을 행하기 전에 배우자를 생각하라
- 92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면 처리가 쉽다
- 59년생 자기 껍데 자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 71년생 기다린 소식이 들리고 일이 성취 된다
- 83년생 크게 열려할 필요는 없다
- 95년생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법이다